

북한개발소식

2025 AUG

08

통권 238호

이달의 주제

광복 80주년과 북한 교회

북한을 위한 기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뉴스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북러 외무장관회담도 열려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북한 사회의 전반적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북한교회의 변천 과정

김 성 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CONTENTS 2025 AUG

이달의 주제 :

광복 80주년과 북한 교회

- 권두칼럼 **01** 김성태 _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북한 사회의 전반적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북한교회의 변천 과정
- 칼럼_1 **09** 유관지 _ 북녘교회는 채권자입니다
- 칼럼_2 **16**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_ 해방 후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
- 칼럼_3 **26** 박완신 _ 광복 80주년과 북한교회
- 서평 **33** 압록강 700리, 북한 기차역과 사람들
- 북한뉴스 **35**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북려 외무장관회담도 원산에서 열려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되새기며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맙시다. 외



1. 연구방법론 및 연구 방향성

이 글은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째 김씨 일가의 통치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연대기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소련에서 소위 해방군대라고 불리던 소련 군대와 더불어 김일성이 북한에 입국하면서 한반도의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여러 정책 및 사건들을 통한 원인 비교 (Cause-Compatability) 및 상관성(Co-relationship)을 연구하면서 미래 전망분석(Perspective Analysis)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교회 지도자의 증언과 그들의 문서 기록은 북한 내부의 교회 변화 과정을 보다 실제로 이해하며, 선교적 이해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 위에 글을 써 나가므로 관련 참고 자료와 보완 설명을 생략하고, 간결하게 논지를 전개하겠습니다.

2. 김일성의 통치 시기와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과 교회에 준 영향(1948-1994)

1)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변화양상

김일성은 초기에 구소련의 통치제도를 북한 전역에 그대로 도입하였습니다. 북



한을 한반도 공산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남한을 공산화하므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모택동의 군사지원과 구소련 스탈린의 전반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약속받고, 한국 전쟁 소위 해방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통치 시기 세 번의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 자본 유치와 부분적인 국제교류법령들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낙후된 경제시설들과 극단적으로 치우친 군사공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과 중앙집권화 된 계획경제 등은 북한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은 주민들의 사회적 토대 즉 성분을 네 번이나 전국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전 주민들을 세 개의 주요 성분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57개의 성분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중앙당인 공산당을 중심으로 각 나이와 직업에 따른 외곽 후비 조직들을 만들어 북한 사회를 통치하였습니다. 성분 조사 시에 기독교인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전국에 산재한 각종 광산 채굴장이나 탄광, 깊은 산악 지역의 나무를 베고 가공하는 임업 공사 같은 곳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노예와 같은 상태로 중노동을 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 중에 비밀리에 신앙적인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한 경우 지도자는 대개 처형을 당하고, 비밀 기독교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경중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노동단련대나 관리소인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김일성은 전 북한 사회를 일종의 병영사회로 만드는 정책인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주민의 무장화, 전 군대의 간부화, 군사 현대화 정책 등입니다. 이러한 군사노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공업으로서 군사공업 즉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을 타도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목적 가운데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이 시기에 북한교회가 받은 종합적인 영향과 대처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북한의 기독교는 개신교회로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동아기독교 즉 침례교가 있었고, 소수이지만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구교회로서 로마 가톨릭도 특정 지역에 상당히 있었습

니다. 이들 모두는 한국 전쟁 전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지하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종군목사나 의료 인력으로 유엔군에 속해서 활동하면서 북한에 유엔군의 진주하였을 때 북한 전역의 개신교회 교세를 조사하였는데 고무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1949-50년 사이에 교인들 가운데 비공식적인 모임이 계속 있었고, 전국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40만까지 교인들의 성장이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침례교, 성결교 교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5만여 명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월남하였고, 전쟁 중에 사망한 교인들도 거의 대등한 수효인데 나머지 교인들은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 지하교회의 그루터기 신자의 기원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계속된 성분 조사 시에 적발된 기독교 세대의 전체 수효가 2만여 가정이 됩니다. 그중에 1만 7천 세대의 약 7~8만 명의 교인들이 전국 각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것과 비례해서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정책을 강경 중의 강경정책인 종교 말살 정책(Extinction Policy)으로 부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김일성의 친가 및 외가 쪽의 친인척, 김일성 가족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들, 전쟁 중에 공훈자 혹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이들 등 적어도 10만 이상의 교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70년대 초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 일부를 성분과 관계없이 복직시키고,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 시기에 김일성이나 그의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일부 기독교인 가정이 애국가 가정으로 복권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기에 북한교회가 지하화하였지만, 신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보내온 The Theological Review(신학지남) 1919년 발행본〉

3. 김정일의 통치 시기와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과 교회에 준 영향(1994-2011)

1)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변화양상

1972년 이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가속화됩니다. 김정일은 소위 주체사상의 기반인 유일사상 체계에다가 수령론과 사회유기체론을 개발하고, 이것을 김일성 주의라고 종합



화하였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유헌 정치를 3년 하였고,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회주의 영생론의 구호를 전국적으로 내걸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의 아버지보다 군사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 전역은 폭우와 홍수와 3년 동안의 기근 등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졌고, 약 3백만이 넘는 주민들이 굶어 죽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약 5십만의 꽃제비들이 북한 전역을 유랑하였고, 약 1백만이 넘는 가정들이 해체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의 북한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이 만연하였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제1차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부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였고, 심지어 기독교 구호 개발 NGO의 도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북한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구호기구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2차 고난의 행군 운동”을 벌리면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고, 독립채산제와 분조 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을 앓고 있는 북한경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독재정치를 강화했습니다.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노동 청년근위대를 조직해서 북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 7년여의 자연재해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상화 이념에서부터 제 살길을 찾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생존본능만 남은 파괴된 인성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악육강식의 병들은 인간성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의 군사 정책을 선군 정책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부분에 군대 우선주의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 시기에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2006, 2009), 심지어는 남한의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 시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비밀리에 핵무기와 각종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김정일 통치 시기 말년에 북한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제2의 고난의 행군 운동을 벌이면서 더욱 군대에 의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 이 시기에 북한교회가 받은 종합적인 영향과 대처

김정일은 그 아버지의 종교 정책인 종교 말살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주 지하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의 색출과 처벌을 명령하였고,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동구라파와 구소련의 공산 진영이 연속적으로 무너지자, 이 원인을 대내적으로는 동구라파와 구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무능과 방심으로 돌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및 서방 진영의 각종 선심 공작과 모략 활동 특히 RFE(Radio Free Europe, 자유유럽방송)와 기독교인들의 침투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더욱 중국 및 제 삼국을 통한 기독교인들의 선교적 침투를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북한 내의 적발되는 기독교인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 통치 시기에 크고 작은 지하교회가 적발되는 사건이 북한 내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북한 내에서는 97-8년도의 함경북도 온성 주변의 대규모 지하교회 적발 사건, 동 시기에 황해북도 과일군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조직 사건 등이 있었고, 중국 내에서는 95년도의 안승운 목사 납치 사건과 러시아 하바롭스크 재미교포 의료선교사 부부인 이주현과 이계월 부부의 살해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연길에서 활동하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으로 납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이 시기 활동을 더욱 은밀하게 하였고, 조직을 더욱 정교하게 소단위의 점조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북한교회는 제1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였고, 거의 해체화 된 북한 지하교회를 전국 규모로 복원할 수 있는 외부의 기독교 선교 세력과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개발하고, 외부의 선교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기도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과, 외부의 헌신된 북한선교의 부름을 받은 준비된 북한선교 일꾼들과, 북한교회 그루터기조직의 자생력 등이 서로 삼위일체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순교한 이주현, 이계월 선교사 부부(위)와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아래)〉

4. 김정일의 통치 시기와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과 교회에 준 영향(2011-2025 현재)

1)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변화양상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 의해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임



〈2013년 12월 12일 보위부원들에게 이끌려 국가보위성 특별재판소에 끌려나오는 장성택〉

명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죽은 2011년 이후에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면서 유일사상을 더욱 교조화하였고, 그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선군 정책을 통한 강성 대국 건설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잠재적인 정적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의 고모부라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고, 중앙당인 공산당을 그의 독재 하부구조로 만들어서 비대해진 군부 조직을 통제하게 하였

고, 이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군부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습니다. 그는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민족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선전과 선동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를 공고화하는 시도 가운데 현재는 그를 수령으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청소년 시기 그의 두 동생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7년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해외 교육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거로서 그는 외국과의 교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시기에는 국제무역지구를 4개 정도 선정하였는데 그는 14개로 확산하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확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자원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2020-21) 다시 시장을 통제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만들어 외부의 사조와 영향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시도 가운데 본인의 정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여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남한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열린 모습으로 국제사회를 대하였지만 문제는 그의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입니다. 그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 내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므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가운데 경제개발을 하려는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북한경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기 동안 상당히 성공적으로 북한 사회를 그의 독재체제로서 장악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정적들을 숙청하였고, 우상화한 김일성 주위와 김정일 주위를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신을 우상화하는 정책을 김정은 주위로 부르며 주체사상 이념 외의 그 어떤 경쟁 이념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기독교인들의 색출 및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월경자들과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하였고, 그중에 2017년에 이루어진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으로 주장되는 가공할 수준의 위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또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였고, 이제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까지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분명한데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두려운 위력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북한을 무장하고, 남한을 볼모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군사 모험주의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대량 파괴 무기 개발을 멈출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우 전쟁(2022년 2월 시작)에 러시아 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우호를 다지면서 군사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이 시기 북한교회가 받은 종합적인 영향과 북한교회의 대처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부의 기독교인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기독교 선교 침투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김창환, 강호빈 목사의 순교, 2012년도 미국교포 케네스 배의 체포와 2014-5년도의 김정욱 목사와 김국기 목사의 납치, 2015년도 캐나다 교포 임현수 목사의 체포, 2016년도 조선족인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의 순교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2025년 황해도 및 평안남도 등지에서 외부와 연관된 지하교회가 적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그루터기 지하교회는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모든 활동들을 북한 내부에 악화된 상황에 맞게 극도로 조심하면서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북한에 체포되어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

북녘교회는 채권자입니다

유 관 지 목사 (북녘교회연구원장)

시작하며

「북한개발소식」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방과 분단으로부터 80년이 되는 올해, 저는 분단 후 북녘교회의 역사(줄여서 ‘분북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에 대한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개발소식」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먼저 「북한개발소식」의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간지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는 것은 통일선교 사역에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이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간지의 발행은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사역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개발소식」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특집의 주제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며 필자 선정이 다양화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북한교회’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 제목에도 이 말이 들어 있는데 저는 ‘북녘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북녘에서는 ‘북한’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고 ‘북조선’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

5. 결론 : 종합적인 성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3대째 김 씨 가족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크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기에 북한의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신앙적인 생존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를 북한교회의 안전과 보안을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북한의 뿌리 신자인 그루터기교회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크게 전통적인 개신교회로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 장로교회가 가장 교세가 컸는데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각 교단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이 끈끈하게 결속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그루터기 지하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10만에 이릅니다. 성분 조사 시에 추방되거나 강제 이동을 당한 교인 세대가 거의 2만 세대에 이르며 그분들의 연락에 의하면 약 60퍼센트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하였습니다. 그 수효는 6만여 명이 이릅니다. 제1차 고난의 시기(1995-2000) 북한에서 중국을 불법으로 넘어간 북한 주민들의 수효가 거의 3백만이 되는데, 그중에 약 5-10퍼센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북한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5-10만의 숨은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김정은 정권은 날이 갈수록 북한 사회 내부를 통제하며 특히 숨어있는 신자들을 색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교회를 보존하시고, 신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노동단련대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약 5~7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순교하더라도 김씨 일가의 우상화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과 순교를 불사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과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벤세메스의 암소처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걸어나는 북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선교의 문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지하교회에서 보내온 1920년 발행 찬송가〉

고 있습니다. 남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나 동계올림픽의 연습장소나 환영만찬장에 “북한 선수단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북측의 항의를 받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대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북녘의 현지에서 직접 겪기도 하면서 저는 오래 전부터 북한이라는 말 대신 ‘북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남녘=온녘”이라는 수식(數式)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녘교회는 채권자입니다” 라는 제목에는 ‘남녘교회는 채무자입니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단 80년, 분북사의 시기구분을 새롭게

올해는 해방과 분단으로부터 80년이 되는 해인데, “해방 80년” 또는 “광복 80년”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분단 80년”이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집의 주제부터 그렇지요. 지난 7월 17일, 통일소망선교회와 예정 합동측의 통일선교 기관들(통일목회개발원·서북지역노회협의회·북한선교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제7회 북한교회 개척포럼이 충신대에서 열렸는데 주제가 “광복 80주년, 북한교회 개척진단과 비전”이었습니다. 오는 8월 15일(금)에는 7개 통일선교사역 단체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연합행사를 갖는데 이름이 “광복 80주년기념 통일선교연합컨퍼런스”입니다. 8월은 광복절이 들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말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올해가 ‘분단’ 80년의 해임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충신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제가 토론을 담당했었는데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방, 광복은 과거, 또는 과거완료의 일이고 분단은 현재 진행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 80년의 해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분북사 80년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된 1945년부터 지금까지 북녘의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제인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북녘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북녘복음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력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은 분북사의 시기구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교회사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김흥수 목사님(목원대 명예교수)이 류대영 교수님(한동

대)과 함께 쓴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다산글방, 2002)의 “II. 북한 종교의 시기 구분”(33쪽~55쪽)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열세 분이 분단후 북한종교의 모습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 관점별로 정리되어 도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목사님(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전 아신대 교수)도 그의 저서 『북한선교개론』(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9)에서 북한의 시기별 종교정책에 대한 열여섯 분의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시기구분은 대개

- ① 제한기(소극적 박해기) 1945~1950
- ② 탄압기(적극적 박해기) 1950~1956
- ③ 말살기(진공기, 암흑기) 1957~1971
- ④ 재출현기(전시기) 1972 이후

라는 기본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기구분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의 종교정책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라는 점입니다. 시기구분은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종교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교회를 피동적인 위치에 놓고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시기구분이 1990년대까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다루지 않거나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후반기 이후에 부각된 지하교회 문제나 한국의 대북민간지원 사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대북지원(‘대북협력’ 또는 ‘남북나눔’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도외시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북녘교회 80년사를 보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을 도출했습니다.

- ① 전통교회 존속기(1945~1950)
- ② 전통교회 부재기(1950~현재)
- ③ 국가교회 출현기(1972~현재)
- ④ 지하교회 활성화기(1998~현재)
- ⑤ 교회소식 단절기(2019년~현재)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통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 베프로 의 신앙고백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16:13~20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행하며,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있으며 조직을 갖춘 교회를 말합니다.

‘국가교회’는 1970년대 이후 북한에 출현한 교회와 관련 기관들에 붙인 이름입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530개 내외)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평양신학원 등의 기관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교회를 전시용 교회(또는 위장전시용 교회), 관변교회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지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권 368쪽에 나오는 “우리는 여전히 종교를 나쁘게 보거나 종교인들을 학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회당도 지어주고 생활조건도 보장해주고 있다”는 김일성의 발언에 근거를두고 ‘국가교회’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에는 ‘국가’가 필요하여 설립하고 관리(또는 운영)하는 교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전통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후 은밀하게 나타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그루터기교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병로 외 3인 공저인 『그루터기』(박영사, 2020)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지하교회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민들을 통해 확산되고,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10,208명 가운데 175명(1.7%)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을 지하교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현민·윤여상·정재호 공저인 『2020 북한종교자유백서』(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2020) 152~15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단 80년의 해에 분북사의 시기 구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 종교 활동 시작 시기(명, %)

북한	중국	중국 외 제3국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시설)	하나원	무응답	계
175 (1.7%)	3,022 (29.6%)	584 (5.7%)	3,544 (34.7%)	2,739 (26.8%)	144 (1.4%)	10,208 (100%)

〈출처: 2020 북한종교자유백서 pp. 158~159.〉

왜 채권자라고 하는가?

북녘은 한국교회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그 해의 부활절인 4월 5일에 입국한 때로부터 140년이 되는 해이어서 우리는 ‘선교 140년’이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언·아 선교사 입국 이전에도 기독교와 여러모로 접촉을 했고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북녘, 또는 북녘주민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북녘을 바탕으로 하고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 사건인 토마스 목사가 목숨을 잃은 일은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인과 선교사와의 첫 만남은 의주 청년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874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로스 목사가 고려문에서 의주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기독교 책자를 전해 주었지요.

수세(受洗)는 기독교에 입교하는 중요한 의식인데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들은 이응찬(李應贊)등 의주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례는 1879년 3월 중국 잉커우(營口-牛莊)에서 행해졌습니다.

최초의 한글성경인 『예수성경전서』(로스역)의 번역과 출간에도 서상륜(徐相畬)등 의주인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 성경은 1882년 선양(沈陽)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1887년 신약이 완간되었습니다.

미조직교회를 포함하면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松川敎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황해남도 룡연군 구미리)입니다. 소래교회의 설립연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혼선이 있으나 1883년 5월 16일로 굳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녘은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수 발생한 곳입니다.

원산 부흥(1903년), 평양 대부흥(1907년), 장로회 독노회 조직(1907년, 제주도 선교 결의), 백만 명 구령운동(1910년), 장로회 총회 조직(1912년, 중국 선교 결의) 등이 모두 북녘에서 있었습니다.



〈1898년 소래교회의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 석간 2면에 실린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제호의 기사〉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장로회 27차 총회 (1938년, 신사참배 결의)도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북녘은 교회가 매우 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성시화’된 곳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서북(황평도)’이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장로교는 신학교가 서울에 있지 않고 평양에 있었습니다.

1934년 9월 5일 자 「동아일보」는 평양에서 행해진 장로교 회년행사들을 2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제목을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이라고 달았습니다. 그 기사 제목의 전부를 소개해 드리면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노회, 부인회, 각종대회 개최/1만5천 교도 동원/십자군의 열병식/ 려청(‘면려청년회’를 말함), 평양 30교회 7교(기독교 학교), 신도/회년기념 기(旗)행렬”입니다.

천도교에서 발행하던 월간지 「개벽」의 1925년 6월호에는 “선천은 기독교국, 재령은 기독교 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고 북녘에는 1군(郡)이 1노회(용천노회)를 이룬 용천(龍川)을 비롯해서, 남감리회의 ‘종합적인 선교’가 행해진 개성, 캐나다장로회의 왕성한 선교가 행해진 함경남도 성진(현재 이름 김책)등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에 있던 곳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한국교회의 ‘주류’는 북녘교회였다”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왕성한 선교열은 북녘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녘교회가 채권자이고, 남녘교회는 채무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북녘에 있었던 교회, 교회가 세운 학교와 병원 등 기관들, 북녘 출신, 또 북녘에서 일한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교회 관련 인물들,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목(표제어)이 7,000여 개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 13,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6명(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집필에 동참하고 있는데 작업을 할수록 ‘북녘이 한국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녘의 교회는 북녘의 교회에 대해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부각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월남민교회’입니다. 월남민교회는 북의 교인들이 남에 와서 세운 교회에 붙인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북에 있다고 해서 근북교회(根北敎會), 또는 고향이 북한이라고 해서 북향교회(北鄉敎會)라고 부르려다가 사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추상적인 말이라고 해서 ‘피난민교회’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난민은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온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북에서 내려온 교인들에 의한 교회들은 1945년 말부터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나 남산감리교회는 모두 1945년 12월 첫째 주일에 세워졌지요. 그래서 ‘월남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월남민교회들을 조사하면서 사전 편찬자들은 또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월남민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몰랐는데 이 교회도 월남민교회였네!’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월남민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정말로 큰 기여를 했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역사가인 김양선(金良善)목사님(숭실대 교수)은 그의 저서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예장총회종교교육부, 1956)에서 6·25전쟁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 말하면서 ”이와 같은 위대한 성과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기인한 바이려니와, 수십만의 북한피난민 신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힘이 컸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천을 넘는 신설교회의 9할 이상이 피난민의 교회이기 때문이다“(100쪽)라고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앞에서 ‘북향교회(北鄉敎會)’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한자로 ‘北向敎會’를 병기해야 한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북녘에 두고 온 고향의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앞장서서 북을 향해 달려가 그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마치며

남한교회는 이와 같이 북한교회에 대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교회는 채권자, 남한교회는 채무자라는 말,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시겠는지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녘교회를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기 그지 없는 글이지만 한 이 글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후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 해방공간 공산주의 세력과 교회의 갈등

조선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 교회는 한반도의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번성했다. 조선의 행정적 수도는 서울이었으나, 조선 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이었다. 1938년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에 기독교인은 60만 명이었는데 그중 75%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에 있었다.¹ 한국기독교 대연감 통계의 경우 1940년 한반도 기독교 신자 수는 50여만 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6만 5천여 명이 북한의 신자로 밝히고 있다. 일본의 교회사가로 북한의 기독교 연구에 헌신한 사와 마사히코(澤正彦)는 일제강점기 말기 일제의 박해에 의해 통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각 교단의 자료를 종합하여 해방 당시 북한의 기독교인 수를 30만~35만 명으로 추정한다.² 일제강점기 후반 조선총독부는 교회로부터 국방헌금, 신사참배, 동방요배, 종교헌납, 시국 강연 등을 강요하였고 1945년 2월에는 교회 폐쇄 명령이 하달되어 예배도 중지되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투옥하였다. 신사참배 반대의 이유로 감옥에 갇혀 죽은 기독교인의 수가 56명이었으며,³ 해방 당시 평양에서 출옥한 성도의 수만 해도 목사 20명을 포함

하여 50명이나 될 정도로 일제의 탄압은 가혹했다.⁴ 그러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반대한 지도자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지방에 다수 건재하였고 평안북도 선천군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평북노회는 당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일본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평안도 지역은 해방 후 교회의 재건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평가될 정도였다.⁵

해방 이틀 후 1945년 8월 17일 평양지역의 교역자들은 ‘평양성 도당회(都堂會)’를 소집하여 22일 일제히 교회문을 열고 예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⁶ 해방과 함께 출옥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재건 방향이 논의되어 9월 20일에는 일제 후기 대다수의 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굴복한 것에 대해 근신할 것과 교회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38선 이북에 대한 소련군의 진주가 이루어지고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며 교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어 교회는 애초의 재건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해방 당시 교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각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가진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선교를 확장한 지역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 대다수가 미국, 캐나다 장로교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전후 평양에서 목회를 하던 황은균 목사는 해방 당시 평양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구원의 천사 미군이 오기를 슬그머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무조건 행복을 했다는데 기다리던 미군은 오지 않았다. 들려오는 말이 소련군이 온다는 것이다. 웬일인가? 38선을 중심으로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분담했다는 것이다. 50% 낙심이었다……. 미군을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소련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민심은 멀지 않아 소련을 몰아내고 미군이 올 것을 믿는 까닭에 낙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또는 신앙 자유를 위해서 꾀없이 싸울 태세였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군정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김일성에게 있어 기독교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리스도교를 처리하지 않으면 북의 공산화는 불가능하다”고

1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ume II, 1935-1959,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4, 209, 210을 사와 마사히코, 『남북한기독교사론』 (서울: 민중사, 1997) p.218에서 재인용,

2 사와 마사히코,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 14.

3 김관식, “한국의 기독교회,” 『해방후 북한 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1948년 이전에 김관식에 쓰인 글은 1974년 미국의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에 실렸다.

4 황은균, “8.15 해방과 평양의 교계,” 『해방후 북한 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p.328

5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후 10년사』, p.44

6 황은균, “8.15 해방과 평양의 교계,” 『기독교교계』 창간호, 1957, 8, 김흥수, 『해방후 북한교회사』 p.328 에 수록.

7 황은균, “8.15 해방과 평양의 교계,” p.328.

말할 정도로 김일성은 기독교계를 경계하였다.⁸ 자연히 해방 후 북한을 장악하려는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기독교인들 간에는 수많은 마찰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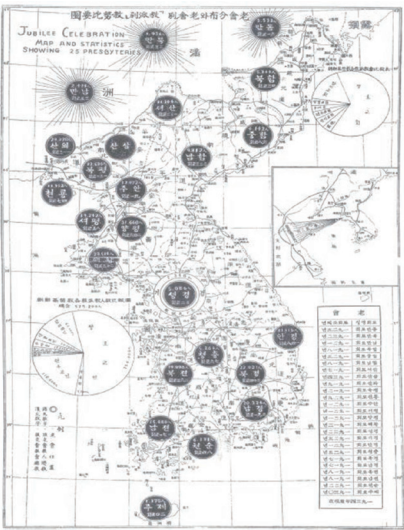
교회와 공산주의 세력 간의 가장 큰 마찰은 1946년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을 두고 발생했다. 평양에서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길선주 목사의 장대현 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교회를 비롯하여 감리교의 남산현교회 등 일제에 항거하여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었다. 또한 평양의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므로 기독교인들은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을 장대현교회에서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38선 이북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공산주의 세력은 교회의 3.1절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평양역전에서 인민위원회가 거행하는 행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2월 28일에는 이에 반대하는 주요 교직자를 체포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3월 1일 장대현교회에 5,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행사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과 교인들간의 마찰이 생겨 3.1절 기념식은 성도들의 시가 데모 행진으로 변모했고 이로 인해 황은균, 김명길, 이춘생 목사가 소련군정 당국에 연행되었다.

1946년 9월 5일, 소련 군정은 38선 이북의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를 11월 3일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련 군정은 해방 후 자신들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첫 선거의 의미를 설명하며 조선 주민들의 환영을 기대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 선거는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데, 기독교계가 선거를 반대한 이유는 선거가 시행되는 11월 3일이 주일인 이유에서였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김일성을 찾아가 면담하는 한편 주일 선거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북한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오도연합노회(五道聯合老會)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성일 엄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일요일에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2. 정치와 종교는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3.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이다.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4. 현직 교직자로서 정계에 종사하는 경우는 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5.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⁹

11월 3일 선거를 전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목사들을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목적으로 침투했다 하여 체포하고 주일 선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구류하는 등 기독교계와 공산주의 세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위의 사건들 이외에도 해방공간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 군정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 세력과 교회 간의 수많은 갈등이 표출되었다. 조만식 장로를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당이 설립되어 공산주의 반대 세력을 규합하였으며,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기독교사회민주당, 기독교자유당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서북 지역에서는 기독교청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반공 시위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945년 11월에 발생한 용천 용암포 반공운동과 신의주 학생운동, 1946년 평양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삼민당(三民黨) 사건 등이 있다. 당시 공산정권에 반대한 수많은 기독교학생과 청년들은 시베리아로의 유형에 처해져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의 기록을 비밀로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이야기는 삼민당 사건으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 김선혁이 1993년 모스크바에서 기적적으로 가족들과 재회한 후 1996년에 출간한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회년기념화보집 (1935년 발간, 2020년 민속원 복간)에 실린 장로교 노회별 교세 지도. 전체 기독교 인구는 약 52만 5천여 명, 장로교 인구는 약 28만 4천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 서북 지역(황해도와 평안도)의 교세가 2/3로 압도적이었다.〉

2. 공산정권의 박해와 기독교인들의 반응

1) 월남

38선 이북 지역에서 기독교계와 김일성의 갈등이 시작될 무렵 38선 이남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한에서 1946년 2월 발족한 '민주의원'의 위원 28명 중 12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구성된 과도 입법 의원 90명 중 21명이 기독교인이었다.¹⁰ 또한 초대 입법 의원 190명 중 38명(목사 13명 포함)이 기독교인이었다.¹¹ 당시 38선 이남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믿을 수 있는 지도 세력이 필요하였고 미국 유학 경험이 있거나 미국 선교사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북한의 기독교 지식인들과 그 가족들의 월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8 사와 마사히코,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 p. 17

9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p.68

10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pp.175-176.

11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993), p. 20.



〈대표적인 월남교회인 영락교회(위)와 충현교회(아래)〉

해방부터 6.25 휴전시 까지의 월남자는 120~140만 명으로, 그중 기독교 신자는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남한의 교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1953년 장로교의 경우 전체 교인 25만 명 중 5만 9천 - 6만 7천 명이 월남한 교인이었다.¹² 감리교의 경우 해방 후 최소한 69명의 교역자가 월남하였으며, 해방 후 1946년 평양에 개교한 성화신학교의 1949년~1951년 졸업생 132명 대다수가 월남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

남한에 개척된 대표적 월남교회로 1945년 12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평북 출신 월남 성도들에 의해 설립된 베다니전도교회(영락교회),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배민수, 김양선, 황은균 목사등이 1947년 개척한 성도교회, 김창인 목사와 해주 출신 성도들이 세운 동일교회(충현교회), 원산의 교인들이 월남하여 용두동에 세운 광석교회, 남포의 교인들 중 배를 타고 목포로 월남하여 정착한 성도들이 세운 성산교회, 함흥 동부교회 성도들이 노량진에 개척한 강남교회 등이 있다. 이들 월남장로교회는 1949년 4월 제2회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각 회원 별로 3인의 추천을 받으면 남부총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때 가입한 목회자 회원이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 1952년 총회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목회자들은 총회 40%의 지분을 확보하여 총회의 교권을 장악할 정도였다.¹⁴

2) 정권에 협력

1946년 2월 8일 38선 이북에서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의장에 올랐다. 이때 서기장에 임명된 사람은 강량욱이었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였으며, 김일성의 먼 친척(8촌 외종조부)으로서 김일성이 창덕학교에 다니던 1923년부터 1925년까지 김일성을 가르치기도 했다. 김일성의 회고에 따르면 김일성은 해방 후 평양에 돌아와 강량욱을 찾아가 “그때 칠골을 떠난 후 지금까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강선생님입니다. 참 지금도 선생님과 력사 시간이면 애국 명장들의 이야기를 해 주시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¹⁵

강량욱은 본인이 영향력을 미치던 평양과 강서, 남포 등지의 목회자 일부를 규합하여 김일성에 우호적인 북조선기독교연맹을 창설한다. 조선기독교도연맹에

는 안창호의 여동생인 안신호를 비롯하여 홍기주 목사, 산동 선교사 출신 박상순 목사 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민위원회 선거 직후인 11월 28일에 평양신앙리교회당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립된다. ‘기독교연맹’이라는 이름이 아닌 ‘기독교도연맹’이란 이름으로 창립된 이유는 ‘기독교연맹’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총체적 호칭이므로 교파 교단 내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인 개개인의 연합체라는 의미로 ‘기독교도연맹’으로 하였다.¹⁶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천의 김익두, 평양의 김치근, 원산의 조희렴 목사 등은 교회의 생존을 위해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일부 협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협력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굴복이라기 보다는 공식적 연합체인 기독교도연맹을 통해 교회를 지키려는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기독교도연맹에서 강량욱의 영향력은 확고하게 유지되었으며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잡혀가 고초를 겪거나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선기독교도연맹은 북한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확장하여 1950년 3월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와 감리교의 성화신학교를 접수하였으며 두 학교를 통합하여 ‘기독교신학교’로 개칭했다. 김용련에 의하면 당시 분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흥리교회의 김용진 목사, 평양역전 유동교회의 배정덕 목사, 김인준 목사, 박대선, 윤창덕 목사와 같이 연맹 가입을 거절한 이들도 있었다.¹⁷

강량욱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중앙위원장 및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조선로동당 부주석 등을 역임하였고 그의 아들 강영섭과 손자 강명철이 대를 이어 조그련 중앙위원장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강량욱을 도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창설한 홍기주 목사는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역임한 후 1960년을 전후하여 숙청당하였으며, 안신호(안창호의 여동생)는 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지내고 1963년 사망하여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6.25 이후 한동안 북한의 기독교는 외부 세계에 일체 드러나지 않았으나 1963년 10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에 강량욱의 참가를 통해 국제무대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서 연설하는 강량욱〉

12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 289.

13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p.76.

14 강인철, “남한사회와 월남기독교인-국우반공체제하의 교회활동과 반공투쟁,” 『역사비평』 23호 (1993), pp. 80-82.

15 평양신문, 1987. 6. 27을 유관지, “강량욱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 72호 p. 30에서 재인용.

16 박원홍, “북조선 인민위원회 선거(1946. 11. 3)와 북한 개신교의 대응,”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51.

17 김용련 목사 인터뷰, 1879, 2, 11,를 장병욱, 『6.25 공산남침과 교회』 p.62에서 재인용.

에 재등장한다.¹⁸ 기독교도연맹의 ‘기독교신학교’는 1950년 7월 5일 졸업식을 가진 후 폐쇄 상태에 있다가 1972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의해 ‘평양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8년 평양에 완공되어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린 봉수교회와 1992년 평양 칠골동에 건립된 칠골교회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소속되어있다.

3) 지하화

상술하였다시피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은 30만-35만 명이었으며 해방부터 6.25 종결까지 월남한 기독교 신자는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6.25 이후 북에 남은 성도의 수는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남북의 단절과 정보 통제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회는 서로 간의 소식을 교류할 수 없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일부 정보기관 출신 기독교인들에 의해,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지하교회 출신 탈북민들에 의해 몇몇 지하교회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티교회 성도 출신의 한 탈북민에 의하면 공산당에 의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 6.25 전쟁이 끝나기까지 개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다수가 월남을 하였지만 교회의 개척과 예배당 건축에 기여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북에 남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들은 북한 정권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보다는 교회 생존을 위한 지하화의 길을 택한다. 지하화한 신앙인 공동체로 국내에 알려진 성도와 공동체로는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인 김○○은 북한에서 본인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친 어느 한 교인에 대해 소개한다. 야곱(가명)의 가족은 삼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이었으며 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사를 이야기 해 주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가명) 장로는 일제강점기 신의주 제일교회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신의주 제이교회, 제삼교회, 제사교회, 제오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했다. 신의주 제육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담임목사 리기선의 임명과정에서도 관여하였다. 해방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신의주교회들이 폐쇄되고 리기선 목사가 일부 교인들과 남한으로 떠난 후 아브라함 장로는 일부 교인들과 평양으로 이동하여 연락을 가질 수 없었다. 리기선 목사가 남한으로 떠난 후

아브라함 장로의 아들 이삭(가명) 목사가 신의주 제육교회 교인들을 맡아 목양하며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했다. 이삭 목사는 1958년 교인들을 데리고 다시 신의주로 와서 지하교회를 운영했으나 바로 체포되어 교인들과 함께 1959년 함경북도 국경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추방지에서 교단에 관계 없이 모여든 교인들을 나누고 지하교회 형식으로 목양하며 목사 직분을 숨긴 채 선생의 직분으로 성경공부와 예배를 인도했다. 그때 그는 평양에서 추방된 B장로와 장로교 교인들을 만났으며 목사들도 다수 만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목양했다고 한다. 1978년 비밀교회를 관리하던 그를 북한당국이 검거하고 예배 처소를 알아내려고 고문했지만 그는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고 순교를 택했다. 야곱 형제는 아버지 이삭이 남긴 한자 성경의 표지를 떼고 그 책을 따로 보관하여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 한자에 능통한 그는 토씨만 한글로 된 한자 성경을 줄 줄 읽었고 거의 외우고 있었다. 김○○ 목사는 1997년 야곱과 함께 표지가 없는 성경을 보았고 그와 함께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전한다.¹⁹

이기백 장로는 신의주 동부교회(성결교)의 장로였다. 신의주 동부교회는 매년 교인들이 증가했지만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43년 12월 성결교단이 해산될 때 교회도 해산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기백 장로는 한경직 목사가 목회하던 장로교회인 신의주 제2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신의주 동부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으나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다시 여러 모양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이기백 장로는 평양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강량욱이 추진하는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측에서 이기백 장로를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기독교도연맹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일로 정권의 미움을 사서 수시로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평양에 머물 수 없게 된 이기백 장로는 1945년 말 황해도로 내려와 피신 겸 요양을 하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 한경직 목사가 그를 남쪽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는 가족들이 위험하므로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갈 수 없다고 거절하여 한경직 목사가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기백 장로의 가정은 평양에 머물던 중 1959년 9월쯤에 함경북도 온성으로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고난의 행군 시기 그의 딸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의 행적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한국교회사에서故이기백 장로는 공산당에 체포되어 1951년도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나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온성으로 추방당한 후, 1993년 온

18 김흥수, “조선기독교도연맹과 국가,” p. 238.

19 김○○와의 인터뷰 (2017년, 2월)



성에서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이기백 장로의 장례식 때는 수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를 하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불렀다고 한다.²⁰

1974년 10월 함흥시 반룡구역(盤龍區域) 용마동(龍馬洞) 부근 지하실에 지하교인 36명이 일시에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이 지하교회는 옛날 교회가 있던 터전을 이용해 꾸렸던 곳인데, 6·25 전쟁 당시 본 교회당은 파괴되고 지하실 입구마저 막혀 버렸다. 교회 구조를 잘 아는 김태용(金泰鏞) 목사는 교인들을 비밀리에 동원하여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비밀 통로를 통하여 지하실로 내려가 성도들과 예배를 시작하였다. 함흥은 북한 제2의 도시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대통령, 유고의 티토 대통령 등 동구권 지도자들이 자주 방문하였고 김일성이 참여하는 소위 1호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도시였다. 반룡구역(현재의 동흥산구역) 용마동은 김일성 동상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1974년 10월 해외 국민 방문으로 인한 함흥의 시내 정비가 추진 되었는데, 이때 위장되었던 예배 처소가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발각된 성도 수는 18세 소년부터 80세 노인까지 모두 3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인민재판 과정을 거쳐 함흥시 만세교(萬歲橋) 다리 아래 강변에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²¹

그 밖에도 김일성전집에 기록된 기독교 반동분자 리만화 목사 사건이 과거 정보기관 출신 기독교인에 의해 공개되었으며²², 동아기독교(침례교)의 감목(총회장) 출신 김영관 목사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²³, 탈북민 출신 사역자인 김 OO 사모 일가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북한 각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되어 함경북도 오지에 모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경험담이 국내에 전해졌다.²⁴ 자신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함경도와 양강도 각지를 비롯하여 해주, 사리원, 평북 순천, 개성 출신의 탈북민들을 통하여 국내에 전해지고 있다.²⁵

3. 우리의 기도

이상에서 우리는 해방 후 북한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성도들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초기 북한의 각 교회는 일제 말 신사참배의 과오를 회개하며 교회를 재건하려는 운동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 그러나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 세력의 견제가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교회를 재건하며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기독교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이 북한에서 득세하고 6.25를 거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한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포함한 일부 성도들은 월남을 감행하였다. 둘째, 강량옥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권에 협력하는 길을 택한다. 셋째, 위의 두 부류를 제외한 대다수 성도들의 선택은 ‘지하화’였다.

이들 중 월남기독교인들은 남한에서 눈부신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이들은 남한에 수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그 교회들 중 일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세계에 알려졌다. 동평양, 서평양, 용천, 의산, 평북, 함흥 등 이들이 속했던 장로교 노회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한의 노회로 이어져오고 있다. 북한 정권에 협력을 선택한 기독교인들은 1963년 10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 이후로 북한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남측의 KNCC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하는 등 남한교회, 전세계교회와의 교류를 주관하고 있다. 이렇듯 월남을 선택한 성도들과 정권에 협력을 선택한 성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남한과 전 세계 교회에 이름이 알려져 북한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한으로 떠나지도 않고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북한성도 대다수, 즉 북한교회의 주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루터기 신자라 부른다.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이들의 강력한 보안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해방 후로부터 지금까지 북한교회의 주류는 그루터기 교회와 성도들이다. 해방 후 80년,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교회의 찬란한 열매가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활동이 전 세계 교인들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였듯이, 지하화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전 세계에 전해지며 그들의 활동이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20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pp. 74-78.

21 박완신, 『북한 종교와 선교통일론』 (서울: 지구문화사, 1994) pp. 320-322.

22 김일성, 『김일성전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391.

23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지역연구』 2023년 겨울호, 통권 3호, (서울: 오픈도어선교회) p. 4.

24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00)

25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자유백서 2012』,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광복 80주년과 북한교회

박 완 신 장로 (소망교회. 관동대법정대학 교수, 前 세계사이버대 총장)

1. 광복 80주년의 민족사적 의미

2025년 8.15광복 80주년을 맞으며 민족의 고난과 기쁨 행복을 되새겨 본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독립의 빛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이다. 8.15광복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의 고난과 슬픔, 기쁨과 행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제헌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했다. 제헌국회는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하면서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여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문 주요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민족의 염원을 들으시므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 주시고 우리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독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후 촬영한 제헌 국회의원들의 단체사진. (사진=한국경제)〉

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 한일합병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36년간 우리 민족은 문화와 언어를 말살당하고 자원을 수탈 당한 채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주권을 잃은 민족으로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려고 일제 강점기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3.1 운동(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 의열단 활동(1919), 광복군 조직(1940) 등이 대표적인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운 기도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광복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 가족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위해 쓰라린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애국선열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고 광복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남북한은 분단의 아픔을 안았다. 심지어는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인해 약 300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남겼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런 민족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국가로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세습권력의 독재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권 권위주의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어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치행태(行態:Behavior)이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북녘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를 바로 알고 북한 기독교 정책과 실상, 그리고 북한교회에 관한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하겠다.

2. 하나님 나라와 북한체제

한국교회는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목표 하에 평화통일선교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리라(마6:33)”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북한체제와 사회문화를 고려하면서 확고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하겠다.

필자가 북한학교수로, 교단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으로 봉직하면서 평양, 개성, 남포,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 북한기독교대표들과 만나 여러 차례 회담을 한적도 있다. 북한의 여러 곳을 방문하다보면 주체사상에서 제시한 수령론, 영생론 등에 따른 거대한 우상신권체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의 우상화와 함께 영생론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영생론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 주조해낸 지도자 신격화 술책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글들이 북한 지역 여러 곳에 붙어 있어 북한이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권정치(神權政治)체제의 모델을 교조, 신화, 성서, 사제직 설치, 탄압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공산정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교조로 신격화하고 있고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이란 책까지 나와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우리의 하늘이요 운명이요 인류의 구세주”라고 신화를 주조하고 있고 2010년에 들어와서는

김정은은 ‘포의 달인’ 운운하며 우상화에 열을 올리 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김정은은 수령의 한 부분처럼 할아버지 김일성과 연계하여 3대세습권력의 신권독재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지금까지 3대 우상신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설에 비유하면서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일(김정은), 성령 주체사상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기독교를 체제유지수단으로 만든 것은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배웠던 성경을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를 다녔고, 특히 어머니인 강반석은 이름이 말해주는 반석 그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김일성의 외조부 강돈욱과 외숙부인 강량욱(북한의 전 부주석)은 목사였다. 김일성도 초등학교 3-4년까지 교회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 중구역 로동신문사 청사 앞에 위치한 영생탑〉

3. 북한교회와 기독교

해방 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한국보다 교회부흥이 더 활발했다. 해방당시 북한에는 70여만 성도가 있었고 3천 40여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8.15해방 후 공산독재체제 유지위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조치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했고, 주요산업 국유화 정책을 통해서는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재산 일체 몰수하기까지 했다. 모든 기독교단체나 교회의 헌금을 금지하고 기독교 단체의 관리재원마저 차단했다. 북한의 종교정책이 갖는 기본 원칙은 종교의 존립 기반 그 자체를 청산하는데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종교인들의 제거와 종교단체의 활동금지가 북한정권의 진정한 의도였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6.25남침전쟁당시까지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어느정도의 활동이 음성적으로나마 보장되는 제한정책을 구사했다. 6.25이후 1953년 휴전시까지 종교탄압정책을 자행했고 60년대에 들어 와서는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1967년부터 197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해서 북한주민을 핵심, 동요, 적대계층 등 3대 계층과 51개 세부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종교인들을 별개의 분류 번호까지 부여하여 최하위의 적대계층으로 전략시켜 탄압하였다.



〈봉수교회(위)와 칠골교회(아래)〉

그러다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종교 역이용 정책을 펴고 있다. 1970년대 국제적 긴장완화와 함께 1972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정치적 역이용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에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고, 5백 20여 가정교회를 두고 있다고 선전한 바 있다.

당시 평양의 ‘내나라비디오제작소’에서 제작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란 영화에서는 마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활짝 피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이 영화 서두에 북한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1987년부터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필자는 한국교회 대표로 10여 차례 남북 기독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기독교자들과 함께 회담을 가진 바 있었는데 북한의 대표들은 북한전역에 1만여 명의 교인이 있고 520여 곳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00년 12월 일본 후쿠오카 회의에서 만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위원장 강영섭목사는 북한에 기독교인이 12,343명이라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 했다.

나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독교계대표로, 북한학자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북한동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바 있다. 8월31일에는 칠골교회로 가서 북한동포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다. 나와 자주 만났던 칠골교회 황시천 담임목사가 반가이 맞이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한다”는 황시천 목사의 짙막한 환영 인사도 들었다.

칠골교회 여성도들의 특송으로 찬송 487장(죄짐맡은 우리구주)과 함께 중창, 합창 등 여러 곡을 불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방문한 목사님, 장로님들도 특별찬송을 했고 헤어지기 전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 부르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더욱이 칠골교회 성도들은 내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 와서 3.1절 기념예배를 함께 드렸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다. 이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다니던 하리교회가 있는 터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특별지시로 건립한 북한체제수립 후 두 번째 교회이다. 칠골교회에서 나와 우리 일행은 1988년에 건립한 봉수교회로 갔다.

봉수교회는 원래 2백여 명 들어갈 수 있지만 2008년 8월 예정통합, 남선교회 연합 등 후원으로 1200명교회로 확장 현당했다. 봉수교회에 들어서니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목사와 봉수교회 담임 손효순 목사가 반가히 맞이했다. 3.1절 때 소망교회에 왔던 이성숙전도사와 내가 해외 남북기독교 회담시 자주

만났던 김혜숙 통역관도 만났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사무실과 내가 소속된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가 세운 평양신학교, 온실 등을 돌아본 후 교회안으로 들어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효순 목사의 환영인사가 있는 후 “예수 앞에 나오면, 주께 두손 모아 비나니, 주 예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등 복녘신도들의 찬양이 있었다.

우리일행은 봉수교회에서 나와 평양 대동강 이남 낙랑구역(11,12 인민반) 아파트 3층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성도 10여명이 있었는데 책임자인 조문옥 집사(위생업무)는 다음과 같은 설명했다. 즉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성도들은 12명이고 1992년 김일성 수령 생일 80돛 계기로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성도가 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우리일행은 가정교회 여자 성도의 아코디언(손풍금이라함)반주에 맞추어 찬송 278장(북한찬송 39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불렀다. 필자도 북한선교 사역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세운 사이버대 총장 임기를 마친 후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교회와 기독교 실상을 고찰해 보았는데 북한 땅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하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안다. 아무리 공산독재체제가 기독교를 탄압한다해도 하나님 역사 속에 전파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할 수 없음은 과거 중국, 소련, 동구 등 공산국가를 봐도 알 수 있다. 북한 지하교회 관련 정보를 통해서 봐도 평양 등 주요도시 지하교회건물에서 예배드리다 발각되어 처형된 사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평화 통일 선교 전략

아직도 세계 2백여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남북한을 보며 평화통일의 소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혈연적 유대가 강한 우리 민족만이 아직도 서로 갈라진 채 분단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17:47)이라는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의 전쟁과 고통,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 섭리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0)”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만



이 7천만 민족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상신권체제로 변질된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 되어 북녘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3)”는 사도바울의 선교 열정을 마음에 담아 북한 동포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과 북한 땅 3,040여 교회를 없애고, 70만 성도들을 탄압하며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죄는 많지만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고 북한동포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일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건전한 기독교 통일선교문화 창출을 위해 범 교단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한다. 특히 한국 내에 심화되어있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정파간, 교단간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먼저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는 남북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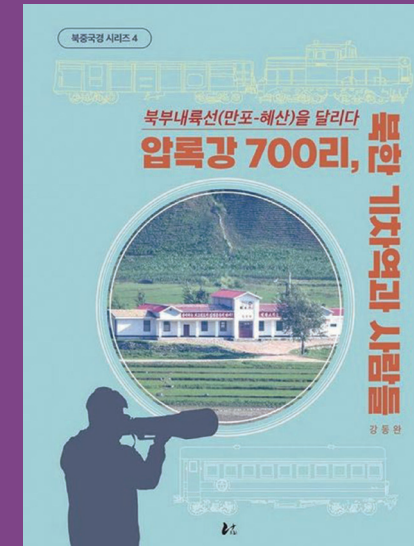
또한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연구,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수시로 통일과 북한선교에 관한 집회나 통일선교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 동·서독통일을 위해 교회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평화적인 통일을 주셨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변화와 평화 통일 환경 발전에 따른 장·단기 통일 선교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가용매체를 동원하여 직·간접 방법을 통한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생명의 길을 주실 줄로 믿는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압록강 700리,
북한 기차역과 사람들
저 자: 강동완
출판사: 너나드리
발행일: 2025년 5월 20일
가 격: 30,000원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이 북중 국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북중 국경은 북한을 방문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특히 북중 무역의 주요 관문이며 북한의 주요 도시인 신의주를 마주하는 단둥이나, 역시 두만강 지역의 주요 관문이고 온성(남양 노동자구)을 마주하는 도문 등이 주로 방문하게 되는 곳들이다. 종종 보트를 탈 수 있는 포인트를 활용하여 북한을 조망하기도 한다. 언 듯 언 듯 볼 수 있는 북한의 작고 큰 마을들을 보며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 책은 북중 국경을 돌아볼 때 잘 돌아보지 않는 지역을 살펴본다. 북부내륙선 기차길을 따라 압록강 중류에서 상류로, 만포에서부터 해산까지 돌아본다. 240km의 상당히 긴 거리를 기차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칠만한 여러 마을들의 이름과 기차역,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사



〈북한 자강도 만포시 심리동리에 위치한 북부내륙선 기차역인 심리동역 앞에 기차가 서 있는 모습〉

진으로 다가온다.

이 책의 장점은 강변에 작은 마을들까지 구체적인 지명을 조사해서 보여주는 저자의 노력이다. 산골짜기 사이에 있는 마을들까지 기차역을 따라 사진과 함께 알려주는 정성은 이 책이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라 북한 국경 지역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중간 중간 지도를

활용해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을의 규모나 위치도 가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을 볼 때 사진으로 포착된 강변에서 생활하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빨래하는 여인들, 짐을 싣고 나르는 사람들, 허름한 기차와 목탄차, 곳곳에 보이는 선전 구호들, 학교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 등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정겨움도 느껴지지만 북한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도 함께 전해진다.

이번 책은 단순히 북한의 모습을 담은 것을 넘어 소소한 지역에 대한 소개도 함께 담고 있어 귀중한 지역 연구 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저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북한을 강 맞은 편에서 바라보며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마도 사진 속의 지역들 대부분이 큰 변화 없이 여전할 것이다. 이전에 북중 국경을 돌아보셨던 분이라면 그 당시 내가 궁금해 했던 마을을 찾아보는 기쁨을 이 책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통해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마음에 더 깊이 품고 싶으신 분에게, 또 북중 국경 지역에 관심 있는 분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소개해본다. 🐼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북러 외무장관회담도 원산에서 열려



월 7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한다고 6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월 16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산갈마의 리조트에 대해 "환상적인 휴양지"라며 "1개의 호텔과 그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호텔들로 이뤄진

도시"라고 설명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원산이 좋은 도로, 해변, 극장, 교통 시설을 갖췄다며 북한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런 휴양지를 조성해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2일에 있었던 북러 외무장관 회담도 원산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섉희 외무상과의 '2차 전략회담'을 진행한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가졌다. 그를 환영하는 연회도 관광지 내 명사십리 호텔에서 열렸다. 북한이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청한 건 이달부터 문을 연 원산갈마 해안지구를 홍보함으로써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3일 외 언론 보도 종합) 🐼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특별히 러시아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오는 7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북한에서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지 시각 7월 1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5월 금강산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강산이 독특한 지형과 경관, 불교의 역사와 전통, 순례 등이 얹혀 있는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았다.

이번 등재로 북한의 세계유산은 3건으로 늘어났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 KBS, 7월 13일) 🐟

북한, '평양-베이징' 열차 운행 시간표 공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열차의 시간표가 공개됐다. 노선은 평양-베이징, 평양-단둥, 평양-모스크바 등 세 가지다. 사이트에 따르면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게 된다.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6개월만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평양과 중국 상하이로 주 2회

왕복하는 항공시간표도 올라왔다. 북한은 지난 2023년부터 베이징 노선은 운항하고 있지만 상하이 노선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조선관광이 공지한 대로 운항이 이뤄지면 주 2회 정기노선이 부활하는 것이다.

북중관계는 북러관계 밀착과 맞물려 소원했지만 최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다. 북중간 여객열차 및 항공 노선의 확대가 인적 왕래 증가 및 관계 회복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참고: 중앙일보, 2025.07.17.) 🐟

북한, 한류 차단 총력... “괴뢰 주파수에 맞추면 안돼” 법령강화



〈북한 '마두산' 브랜드의 폴더블 스마트폰〉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7월 8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을 수정했다.

이를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북한 법령집 내 전파관리법(2015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전파·무선통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제3장 '전파설비 이용'에 '방송수신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괴뢰' 용어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측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이라는 뜻이다. 주로 북한 선전매체들이 남한을 비난하며 사용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며 관영매체 등에서도 빈번하게 '괴뢰한국' 표현을 쓰고 있다.

개정 전파관리법에는 이외에도 기술검사를 받아야 할 전자, 전파 설비 대상을 ▲ 무선조종기능과 항법수신기능이 있는 전자, 전파 설비 ▲ 위성통신, 이동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등과 같이 조목 조목 명시하며 대부분의 설비로 확대했다.

또 전자 장비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전파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설비를 연구 개발·제작·생산 시 과학기술심의를 받기 전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신망의 구성과 이용' 조항(제22조)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경이 맞닿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방송에 더해 일부 조직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9일) 🐟

유엔제재 위반에도 버젓이… “중국서 북한노동자 파견업체 영업”



〈중국 인력파견업체 홈페이지 대문화면 (NK뉴스 캡처)〉

중국의 한 인력파견업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알선을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7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노리소프트 베이판 노무(勞務)'는 홈페이지에서 자사를 "중국 내 최고의 북한 노동자 파견 특화"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안정적인 인력, 안심 고용, 대규모 인력·신속 대응" 등의 슬로건이 쓰여 있다.

이들은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채용, 심사, 교육, 성과 평가, 보수, 복리후생, 보건 안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아웃소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 회사는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은행, 중국과 학원 등 자국 주요 기업뿐 아니라 도요타, 지멘스 등 다국적 회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식품 가공,接客업, 공연예술, 정보기술(IT) 분야의 400개 기관에 노동자 8만 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북한 출신이 아

닌 다른 노동자 수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NK뉴스가 전한 노리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가 북한 노동자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북한 정부가 고용인 측과 해외 파견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파견 노동자 수와 업무시간, 업무 내용, 임금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북한 정부는 고용인에 '소정의 파견 수수료'를 부과하며, 북한은 이 수수료를 자국 경제 구축에 활용한다고 회사는 설명한다.

노리소프트의 홈페이지에는 중국 옌청시 텡후구(區)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파견업 면허증' 이미지도 게시돼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다.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에도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6일)

1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되새깁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던 북한 교회는 형용하기 어려운 환란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억압과 박해로 신음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한의 교회가 북한 교회에 대하여 빛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에 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공급과 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3 해외 북한 노동자들과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3차 파병을 진행합니다. 이번 파병은 공병·군사건설인력을 중심으로 6천여 명 규모로 알려집니다.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한 것이 최근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소통 창구 북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대의 통일 유산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과 북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위정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독교 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옥(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

(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적발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및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디오는 폐쇄적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파관리법을 개정하며 통제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라디오나 휴대폰 등 주파수를 사용하는 미등록 전자 기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 금지, TV와 라디오 등에 고정해놓은 주파수 해제 금지, 외부의 라디오 신호 등에 대한 방해전파(재밍, Jamming)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향한 복음의 전파는 멈추지 않고 북녘의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에 수고하는 방송 기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음질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북녘의 청취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시행 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에서 38개 조항으로 늘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더욱 정밀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엄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북한의 지하교회가 외부와의 연락 과정에서 적발되어 적어도 수십여 성도 가정이 큰 피해를 입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억압적인 주민 통제와 아울러 외부세계와의 소통과 연락을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한 당국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사역이 보안에 유의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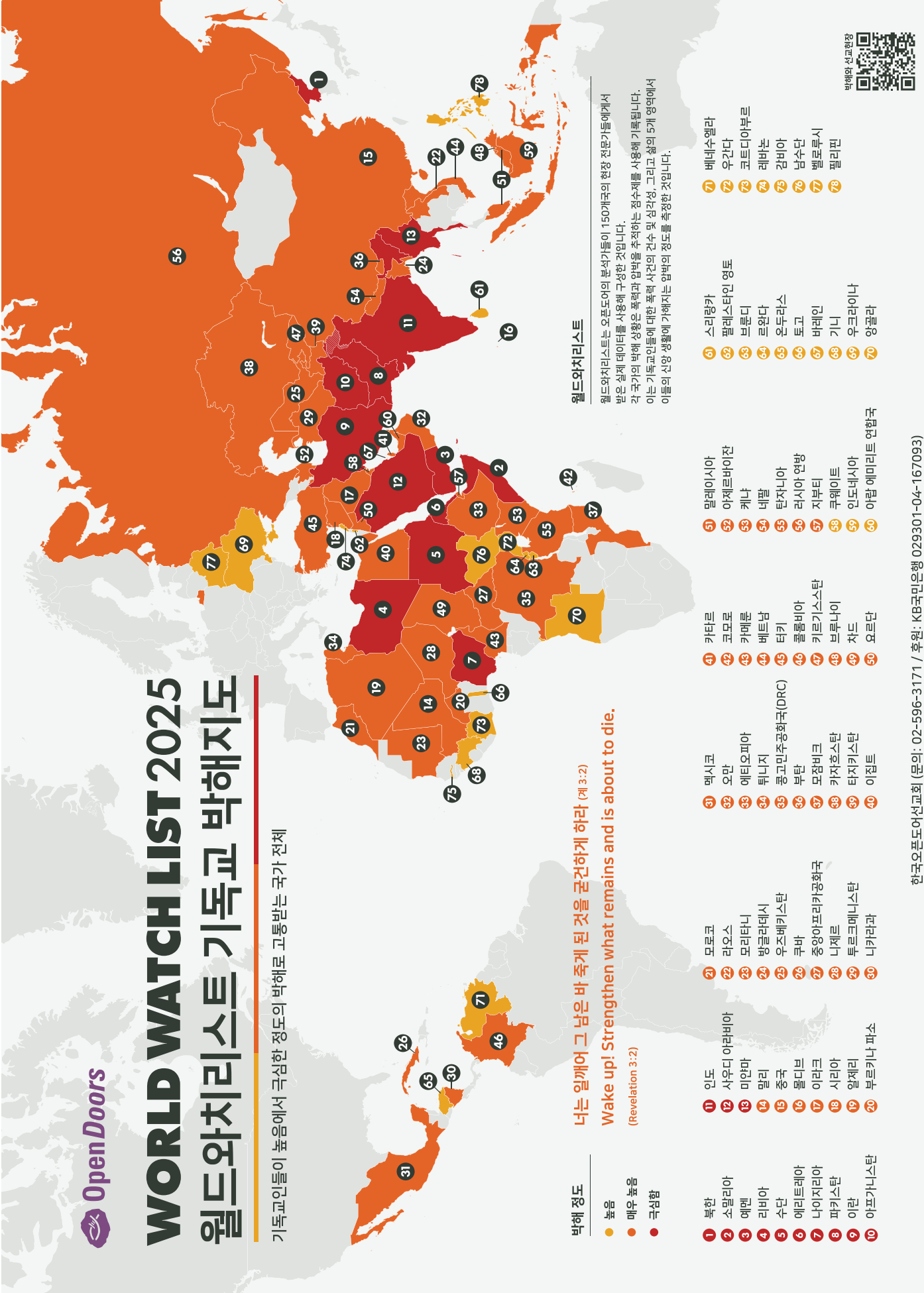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7월 31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